한국 속 네팔불자 구심점…투병으로 본국행

뇌졸중으로 출국하는 우르겐 스님

동두천=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지난 15년간 한국에 거주하는 네팔 이주민들의 안식처로 활동해 왔던 동두천 용수사 주지 우르겐 스님이 9월 8일 한국생활을 마무리하고 본국으로 돌아간다.

우르겐 스님은 재한 네팔인들의 종교적 스승이자 한국생활을 지원하는 매개였던 만큼, 스님의 부재 이후 그 빈자리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다. 무엇보다 우르겐 스님이 본국으로 돌아가는 이유가 한국 생활 중 갑작스레 닥친 뇌졸중 때문이라는 점에서, 이에 대한 안타까움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15년 세월 동안 한국에 거주하는 네팔불자들의 정서적 의지처이자 해결사 역할을 해왔던 만큼, 우르겐 스님을 향한 아쉬움과 애정의 목소리가 높다.

8월 28일 동두천에 위치한 네팔법당 용수사에서 우르겐 스님을 만났다. 휠체어에 의지한 스님은 1년 새 체중이 급격히 감소된 모습이었다. 트레이드마크였던 통통한 얼굴에 장난꾸러기 같은 웃음 대신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얼굴과 목 주위의 근육이 뜻대로 움직이지 않아, 간단한 의사표시조차 힘든 상황이다.

우르겐 스님은 지난해 7월 법당에서 갑자기 쓰러져 생사의 고비를 넘나들었다. 뇌출혈로 인한 뇌졸중이었다. 긴급히 수술을 했고 이후 10일간 깨어나지 못했다. 다행히 의식을 회복했지만 온몸이 마비되고 자가호흡에 어려움을 겪는 등 심각한 상태가 이어졌다. 담당의사는 "이대로라면 6개월을 넘기지 못할 수도 있다"며 최악의 상황까지 내다봤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다. 스님은 기적적으로 회복됐다. 거동이 쉽지 않고 아직 정신이 명료하지 못해 세밀한 내용은 기억하지 못하지만, 휠체어에 의지해 앉거나 서고 부축을 받아 걷는 정도는 가능하다. 그럼에도 예후는 낙관적이지 못하다. 오른쪽 신체가 여전히 마비된 상태로, 재활의 속도도 더디다. 신도들의 도움으로 재활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지만, 병원에서는 재활의 가능성을 낮게 진단했다.

네팔법당 용수사 주지로
15년간 이주민 지원행보
2020년 7월 쓰러져 투병

결국 스님은 본국행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 무엇보다 말을 할 수 없고 거동이 불편하니 기도와 법문, 법회를 집전할 수 없는 상황이 막막하다. 치료비 고민도 크다. 수술비와 병원 치료비는 능인선원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다행히 해결됐지만, 재활의 기간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에서 비용부담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스님의 출국은 불가피한 결정이지만, 한국에 남은 네팔인들이 스님의 부재로 겪을 상실감은 또 다른 과제다. 우르겐 스님의 역할은 용수사를 찾는 신도들의 신행을 돕는 차원이 아니라, 비자나 노동문제, 병원 진료시 전화 통역까지 한국 전역에 분산돼 있는 네팔인들이 의지할 수 있는 창구나 마찬가지기 때문이다.


휠체어에 의지한 우르겐 스님.


불교계 前 불교계 이주민활동가들과 함께.

스님을 곁에서 돕는 다와 타망씨는 "스님이 쓰러진 후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전국 각지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전화가 걸려온다. 스님의 연락처가 오랜시간 네팔이주민들 사이에서 널리 공유돼 왔기 때문"이라며 "다행히 서울 텍첸사에 쿤상 스님이 계셔서 긴급한 사안은 부탁드리지만, 우르겐 스님이 없다면 정말 막막한 상황에 처할 네팔인들이 많을 것"이라고 안타까움을 전했다.

차도 없어 9월 8일 출국
부재로 인한 공백 '우려'
감사인사로 아쉬움 전해

휠체어에 의지한 채 대화에 임하는 우르겐 스님은 만감이 교차한 표정이었다.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웃거나 답답함을 토로하는 등 표정을 통한 의사 표시는 했지만, 두 음절 이상의 단어를 발언하지 못했다.

이날 동행한 前 불교계 이주민활동가들도 그런 스님의 모습을 마주하며 참담함을 숨기지 못했다. 어려운 시절 우르겐 스님과 동고동락했던 만큼, 스님의 원력과 활동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남춘호 마하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 전 사무국장은 "우르겐 스님은 네팔 이주민과 한국을 잇는 독보적인 소통창구이자 그분들이 한국에서도 신심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신적인 안식처를 제공했던 지지자"라며 "자비심으로 정말 많은 일을 해왔는데 정작 당신이 병고로 쓰러져 회복되지 못한 채 한국을 떠나게 됐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가슴 아프다"고 눈시울을 붉혔다.

우르겐 스님은 2006년경 능인선원 산하조직이었던 YBA와 인연을 맺고 한국에 정착했다. YBA를 통한 능인선원의 지원으로 한국에서 만다라전을 개최했고 모연된 기금으로 지금의 동두천에 용수사를 개원했다. 이후 재한네팔인들을 보듬으며 한국불교계와도 긴밀하게 교류해 왔다.

특히 무뚝뚝하면서도 잔정 깊은 따뜻한 성품으로, 활동가들 사이에서 '네팔 포대화상' 혹은 '곰돌이 푸우' 라는 애칭으로 지칭되곤 했다.

우르겐 스님은 9월 8일 오전 네팔행 비행기에 오른다. 네팔에서 약초치료 등 전통요법으로 재활을 시도할 계획이다. "꼭 회복해서 한국에서 다시 뵙자"는 인사에 씁쓸한 웃음이 번진다. 15년간 머문 한국은 스님에게 이미 제2의 고향이다.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두 팔로 합장자세를 취하려던 스님이 이내 포기한 채 신중하게 한 음절, 한 음절 목소리를 냈다. "감사합니다." 스님의 따뜻한 미소가 영원한 작별이 아닌, 다시 만날 날을 예고하는 인사이길 바라본다.

후원계좌 : 기업은행 589-002076-02-018 (예금주 LAMA URGEN)

진흥원, 제18회 대원상 후보 공모

출 · 재가 부문…오는 9월 30일까지

불법 홍포 앞장 선 공로에
대상 2000만원 상금 지원

불법 홍포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출가자 · 재가자 · 불교단체를 시상하는 제18회 대원상 후보자를 공모한다.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이한구, 이하 진흥원)은 "불교를 현대적으로 재조명하고 현대사회에 적합한 새로운 포교 방법을 창출 · 장려하기 위해 시상하는 제18회 대원상 후보 접수를 시작한다"고 9월 2일 밝혔다.

2003년 제정돼 올해 18회째를 맞는 대원상은 출가 부문, 재가 부문으로 나눠 공모한다. 대상에 2000만원, 특별상에 1000만원, 장려상에 500만원을 각각 수여한다.

서류 제출은 대한불교진흥원 홈페이지(www.kbpf.org)에서 소정양식을 내려 받아,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접수기간은 오는 9월 30일까지다.

한편, 대원상은 (재)대한불교진흥원의 설립자인 故 대원 장경호 거사의 뜻을 기리고 '세상을 위한 불교' 라는 기치 하에 21세기 현대사회에 적합한 불교정신과 사상의 보급과 전파를 위하여 모범적으로 정진하고 있는 출가와 재가의 각 개인 및 단체를 선정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를 통해 현대사회에 적합한 새로운 포교방법을 창출 · 장려한다는 취지다. 제1회 불국사 주지 성타 스님을 시작으로 맑고향기롭게 회주 법정 스님과 동국역경원장 월운 스님, 前 조계종 포교원장 무진장 스님 등이 역대 수상자로 선정됐다. 02)719-2606 신성민 기자

생명나눔, 난치병 환아 지원금 전달

8월 30일 조계종복지재단에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는 8월 30일 본부 회의실에서 조계종 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보인)이 난치병 어린이 치료비 지원금으로 1,600만 원을 본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전달식에는 일면 스님과 보인 스님, 사회복지재단 사무처장 해공 스님 등이 참석했다.

선정된 난치병 어린이는 가와사키병으로 급성심정지 이후 심근경색 및 뇌손상을 입어 입원 재활 치료 중인 권성윤(가명, 3세) 환아와 중추신경계통의 상세불명 장애를 앓고 있는 박율(가명, 5세) 환아 그리고 진행성 다초점 백질뇌병증으로 5세부터 혼자 걷는 것에 어려움이 있어 검진을 통해 장애 진단 후 누워서 생활 중인 이연수(가명, 18세) 환아로 총 3명이 선정됐다.

일면 스님은 "난치병 어린이를 돕기 위해 치료비를 전달해 주신 조계종사회복지재단에 감사드린다. 전달 받은 치료비 지원금은 선정된 난치병 환아에게 잘 전달하겠다"며 "이번에 선정된 난치병 환아 이외에도 고액의 치료비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환아 가족들이 많은데 생명나눔실천본부도 사회복지재단과 협력하여 난치병 어린이를 돕는데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보인 스님은 "어려운 상황에도 선한 도움의 손길과 관심은 끊이지 않을 테니 희망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노덕현 기자

종로노인복지관, 인문학 강좌 운영

9~11월 서울시민 대상 무료

서울 종로노인종합복지관(관장 정관이)이 9월부터 11월까지 서울시민들을 대상으로 무료 인문학 강좌 '인문학, 마음을 읽다 다독(多讀)다독' 을 진행한다.

인문학 강좌는 본관과 분관에서 나눠 진행되며 본관 4층 종로마루홀에서는 9월 9일부터 10월 14일까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4시 진행된다. 온라인 강의는 복지관 유튜브 '종로의 품격' 을 통해서 중계된다.

강좌서는 인문학 서적 저자들이 직접 나선다. 〈랜선 인문학 여행〉 박소영 작가의 '랜선여행으로 설레는 인문학', 〈영화가 나에게 하는 질문들〉 원은정 작가의 '영화로 보는 관계의 인문학', 〈하고싶은대로 살아도 괜찮아〉 윤정은 작가의 '어른을 위한 용기 인문학' 강좌 등이다.

강좌는 각 5회기씩 구성되어 있으며, 교육 진행방식은 강의에 따라 각각 다르다.

분관 무악센터에서는 9월 4일부터 11월 13일까지 매주 토요일 10시부터 1시간 가량 '토요 온라인 인문학 아카데미' 가 화상회의 플랫폼인 'ZOOM' 으로 진행된다.

이근후 이화여대의대 정신과 명예교수가 강사로 '86세 정신과 교수가 친구들에게 들려주는 노인 이야기' 를 강의한다.

관장 정관 스님은 "코로나19 상황에서 평생교육을 열망하는 지역민들을 위한 인문, 교양 함양의 기회"라며 "비대면 온라인 강의를 통해 보다 많은 이들이 접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앞으로도 종로노인종합복지관이 지역 문화복지의 거점 역할을 해낼 것"이라고 말했다. (02)742-9500 노덕현 기자

동국의 꿈 세상을 깨우다

dongguk UNIVERSITY

4차산업혁명 시대에 대학민국의 미래를 이끌 인재를 키워 나갑니다

2022학년도 수시모집
2021.9.10 (금) 10:00 ~ 2021.9.14 (화) 17:00

동국대학교 특성화분야

불교 & 문화예술
- 불교 및 불교융합
- 문학, 연극, 영화영상

바이오 & 메디
- 의생명과학, 한의학, 약학 및 BT
- 신약, 의료기기, 기능성 식품

Safety & Security
- 재난방지, 식품안전
- 치안, 범죄, 정보보호

D.N.A
- Big Data, Network(IoT, Cloud), A.I

